

미국의 공공도서관 이용자 분석연구

김 중 한

<인디애나주립대학교도서관학과교수>

이 글은 필자가 1988년 5월초 조국을 방문하였을때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하여 서울여자대학에서 개최된 문헌정보학회 모임, 부산여자대학, 경북대학교 및 국회도서관에서 실시한 세미나의 내용을 보충하여 간추린 것이다. 이 글의 내용은 필자가 1980년과 1981년에 걸쳐 인디애나주의 여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 연구한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저자주>

도서관 서비스는 민주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케 하는데 불가결한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의 하나이다.

필자가 미국 학생들에게 늘 자랑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중국과 한국의 동활자(銅活字) 인쇄술이 르네상스시대 구라파의 구텐베르크(Johnn Gutenberg, 1400-1468)의 납(鉛)활자 인쇄술 발명보다 200년이나 앞섰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인쇄 출판 문명이 중국이나 한국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서구에서 발전시켰느냐?”라고 학생들이 반문을 한다.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가 않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곤경을 모면하였다.

이태리에서 시작된 르네상스시대의 서구에서 인쇄

출판업이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였었음이 틀림이 없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묘사되어 있듯이 르네상스의 본고장인 15세기 베니스는 지중해(地中海)를 통한 무역과 상공업이 번창한 상공업문화의 도시였었다.

일설에 의하면 베니스에서 장사에 실패한 독일인 구텐베르크가 빚을 갚기위한 방편으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고안하여 가까이 있는 로마 법황청(法皇廳)에서 발행한 면죄부(免罪符)를 많이 인쇄, 납부하여 재미를 많이 보았다고 한다.

구텐베르크가 인쇄 출판한 책중에서 가장 귀하고 유명한 책이 구텐베르크 성서(Bible)이다. 현재도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책이 성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15세기 카톨릭교회에서 필요한 성서 및 기타 목회관계 인쇄물 발간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교회뿐만 아니라 무역 상업 거래

이 글은 필자의 저서 *public Library Users and uses; A Market Research Handbook*. Metuchen, N.J.Scarecrow Press, 1987. 제2장과 6장을 간추린 것이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독자는 아래 소개한 필자가 쓴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Occupational Users and Uses of the Public Library, *Public Library Quarterly*10(1) 또는 10(2)호, 1987.

에 필요한 종이로 만든 화폐, 상거래 계약문서, 정부관리들이 요구하는 각종 문서등 인쇄물의 수요량이 방대하였을 것이다.

16세기에 이르러 인쇄 출판사업은 더욱 팽창하였으며,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기에는 북구(北歐)를 포함한 서구(西歐) 전역에 일반독자층을 위한 출판문화가 확산되어 갔다. 16세기초에 마틴 루터(Martin Luter)가 카톨릭교회의 부패에 반발하여 신교(Protestantism)가 발생한 것도 사람들의 지식정보 갈증(渴症)현상을 해소시켜준 구텐베르그의 활자 인쇄술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시기의 한국은 완전히 폐쇄된 은둔국(隱遁國)이었다. 세종대왕의 어명에 따라 한글이 제정된 것은 무지한 백성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인쇄 출판문화가 발전하기는 커녕 싹도 트지 못하였다. 사족(士族) 양반특권층이 만들어 놓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경직된 계급체제에 구속되어 양반들이 독점하고 있던 적은 농토에 매달려 농노(農奴)와 다름없는 가련한 백성들이 인쇄 출판문화를 접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기술지식 정보의 신속하고 자유로운 교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상공인(商工人)들이 가장 천한 계급으로 천대를 받았으니 인쇄 출판업이 정착되지 못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다.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도 도서관은 원래 지배계급층이 직업상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다. 지식 정보사회라고 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지도층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인들에게 직업상 절대 필요한 공공기관이 되었다.

미국 도서관사에 의하면 북미 대륙에 처음 이주한 영국인들이 최초로 설립한 도서관은 1635년경 하버드(John Harvard)란 신학자(神學者)가 대학창설 당시 개인 장서 400권을 기증하여 설립한 하버드대학 도서관이었다.

하버드대학은 신학대학으로 시작하였는데, 대학교수들과 학생들이 직업상 도서관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 대학에서 양성된 많은 교역자, 목사들이 전

국에 흩어져서 교회당을 짓고 설교를 할때 교회마다 도서관을 많이 설치하고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지금도 교회마다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교인들, 특히 젊은이들의 신앙분야의 독서에 많이 제공되고 있다.

지식과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고 또한 급속도로 팽창하는 의학분야와 법률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직은 원래 자기들의 전용 특수도서관을 설치하였다. 현재는 모든 학술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학자와 과학자들도 전용 특수도서관을 설치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큰 종합대학교 도서관들은 모든 학술분야의 전용 특수도서관을 통합한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이와같은 논리에 따라 공공도서관도 모든 직업인들이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19세기초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미국의 공공도서관은 전적으로 지방세(地方稅)와 주세(州稅)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50개주가 제 나름대로 자치(自治)하는 합중국이다. 따라서 연방정부와 공공도서관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이와같이 공공도서관은 지방도서관이 된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다른 도시의 방문객이 도서관 열람은 할 수 있으나 책 대출은 할 수 없다.

필자는 도서관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여 설문지를 통하여 도서관 이용 목적을 질문하였다. 사전에 질문사항으로 설정한 12종류의 목적중에 한 종류가 직업 또는 업무관계로 인한 도서관 이용이다. 직업상 이용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은 다음 11종류로 구분하였다.

이용자 자신의 어린 자녀를 위한 도서관 이용, 자신의 학습용, 취미 또는 오락용, 시사에 관한 이용, 소비성제품의 가격과 품질 검사에 관한 이용, 개인의 재정 투자에 관한 이용, 자작(自作)프로젝트를 위한 이용, 수예(手藝)프로젝트를 위한 이용, 개인 소속단체의 일을 위한 이용, 위생건강과 병치료에 관한 이용 등이다.

원래 도서관이 직업용으로 이용된 것이라면 직종 또는 직업의 성격과 공공도서관 이용의 양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직업에 따라 이용도가 각기 다르고, 이용목적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필

자의 연구목적의 하나는 이러한 가설(假說)을 실제로 얻어진 결과와 대조 확인하려고 한 것이다. 지면관계로 여기에서는 직업용 도서관 이용에 관한 것만으로 한정하여 다루기로 하겠다.

가정부인과 은퇴한 사람을 포함하여 성인들을 직종에 따라 20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직종구분은 미연방정부의 상공부 국제조사국에서 발간하는 방대한 인구통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조사국의 직종분류에 준하기로 하였다.

여러가지 목적을 위한 도서관 이용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것의 수량화(數量化)가 필요하다. 각 그룹의 이용자들중에서 직업용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그들의 백분율을 산출하여 퍼센트 스코어(Percentage Score)를 매겨 그것을 각 그룹의 직업용 이용도 스코어로 기입한 것이다.

예를들면 학교 교사 100명중 50명이 학교업무일로 도서관을 이용하였다면 교사들의 스코어는 50.0이다. 이 스코어는 개인들의 스코어가 아니고 그룹 스코어이다. 따라서 이 수치는 물론 각그룹마다 다르다.

20개 그룹을 그룹스코어의 크기 순위에 따라 나열한 것을 표 I 에 제시하였다.

(각 그룹의 순위는 도서관 이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표 I. 직업용 도서관 이용자의 직종별 순위

순위 스코어	직종
1. 50.8	문필가, 작가, 신문잡지·라디오·TV 편집자 및 기자, 화가, 예술가, 상업 미술가등
2. 47.6	세일즈 매니저 (Sales manager) - 각종보험회사, 신문잡지 기타 미디어 광고 판매 관리책임자.
3. 45.7	기업체, 공공기관의 최고급 관리책임자 - 중소기업주 및 경영책임자도 포함
4. 45.3	각급학교 교사 및 대학교수
5. 40.4	각종 전문상담역(예: 기업경영상담, 경제계획상담, 성문제상담, 정부원호

	담당원 (Social Worker).)
6. 40.4	교직자(목사, 신부, 기타 교회관계 종사원)
7. 30.8	엔지니어(고급기술자)
8. 27.6	중하급(中下級)매니저 및 공무원
9. 27.0	의사, 변호사, 법관.
10. 26.4	각종 기술자, 숙련공, 공정반장(For-emen)
11. 20.9	실업자-여러직종 포함
12. 20.2	서어비스-2.(건물, 창고, 공항, 운동장, 유원지 등의 청소 유지하는 잡역, 식당종업원, 가정부 등을 포함)
13. 18.2	공장직공, 각종차량, 토목건축기기사 전기사 및 일반노동인부 등을 포함
14. 16.4	서어비스-1(소방원, 경찰관, 군인, 경비원 등)
15. 14.5	상점판매원. 예: 금전출납원, 고객접대원 등
16. 13.8	하급서기, 비서, 일반사무원, 사무보조원, 타자수 등
17. 13.8	간호원, 약제사, 물리치료원, 각종의료기구 조정기사 등
18. 13.4	가정부인-정시제(定時制),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업 여성
19. 8.3	은퇴자(연령65세된 여성 포함)
20. 3.8	가정부인-직장에 나가지 않고 가사에만 전념하는 사람들

표 I에서 보는 바와같이 20개의 그룹이 크게 4개 집단이 자연스럽게 뭉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번째 집단의 평균 이용도 스코어는 45.9%, 두번째 집단은 20.04%, 세번째 집단은 16.4%, 네번째 집단은 5.56%이다.

이와같은 4개집단 사이의 평균 스코어 차이를 통계확률에 준하여 보면 유의수준(有義水準-Significance level)이 매우 크다. 이런 수치의 차이가

우발적인 결과라는 개연성(蓋然性)이 매우 적다는 뜻이다. ($P < .001$)

20개 직종별 그룹의 직업용 이용도가 이와같은 순위로 4개의 자연스런 집단으로 엮힌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직업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다르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직업의 성격상 지식 또는 정보에 의존하는 정도가 클수록 직업용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을 포함한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도가 높다. 또한 직업의 성격상 업무에 관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클수록 도서관이용도가 높다. 이용자 교육정도, 연령, 성별은 부수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과 이미 설명한 20개 성인그룹을 개별적으로 위의 가설에 의거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

학생그룹

각급 학교 학생들을 한 직종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학습을 위한 도서관 이용을 직업용이라고 취급하면 그들의 학습용 이용률은 60 내지 80% 사이에 달한다. 그들을 표 I의 직종별 설명에 포함시킨다면 단연 최선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공공도서관 이용자중에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생들이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을 가산하면 학생들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초등과 중등학교 학생들의 비중은 지방 도시로 갈수록 더욱 커진다. 마을문고를 포함한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거의 전부가 학생으로 되어 있는 한국의 실정은 지식정보 사회로서의 심한 후진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성인들의 직업이 거의 전부 표 I의 서열에서

하반(下半)에 속하는 것에 반하여 미국과 같은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상반(上半)의 서열에 속하는 중산층의 비중이 비교적 크다. 가장 두드러진 예를 들면 미국인구중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3%가 안된다. 한 사람의 농사꾼이 30명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많은 잉여 곡물을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표 I의 서열에서 첫번째 집단에 속하는 6개 그룹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람들의 일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만들어 내거나, 또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전문지식에 의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2] 이 사람들의 일은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을 해야하며, 그들이 결정한 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3] 이 사람들의 업무나 프로젝트의 시한(時限)이 비교적 짧고 빈도가 잦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서열에서 선두에 있는 문필가, 작가, 편집인, 기자, 예술가들이다.

문필가, 작가, 편집인, 예술가 등

이 분야의 사람들이 도서관에 많이 의존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일의 성격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창작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소재가 필요하다. 신문잡지 기자, 편집자, 라디오와 TV방송기자 편집자들은 기사 또는 방송 프로그램의 사실적인 근거를 조사 확인해야 하므로 도서관의 뒷받침이 없으면 자기 직업에 많은 지장이 있다.

또한 이 사람들의 프로젝트는 시한이 짧고 순환도가 매우 잦은 편이다. 다시말하면 대단히 바쁠뿐만 아니라 항상 시한적인 제한에 쫓기기 마련이다. 이 사람들이 제작한 작품은 결국 도서관에 보관되므로 도서관이 이 사람들의 업무상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Data Base)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세일즈-1

두번째로 높은 순위에 있는 그룹이 세일즈 매니저들이다. 모든 기업체 및 각종 보험 회사 판매 책임자, 각종 방송미디어를 비롯한 신문잡지사의 광고판매 책임자들이 포함된다. 이 사람들은 배당된 책임 판매량을 확보하고 영업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고객을 찾아다녀야만 한다. 각종 회사명부, 전화번호부, 도시인명록, 각종연감, 신문잡지에 기재된 광고를 검색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

매니저-1

세번째로 높은 순위에 있는 그룹이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최고급 경영관리책임자들이다. 중소기업체 소유주 또는 경영책임자들도 포함된다. 이 사람들을 매니저-1(Manager-1)이라고 부르고, 중하급 경영책임자(매니저-2)와 분리하였다.

가설에 의하면 업무에 관한 재량권과 책임에 따라 이용도가 다를 것이다. 매니저를 최상급 책임자와 실무책임자로 구분하여 이 가설을 적용해 보려고 한 것이다.

표 I 에 나타난 바와같이 최상급 경영책임자(매니저-1)는 첫 집단에 속하고 실무급 경영책임자(매니저-2)는 두번째 집단에 속한다.

이 두 그룹의 연령을 비교하면 이미 규정한 바와같이 매니저-1이 연상(年上)으로 나타난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다. 상식적인 판단에서 볼때 연령과 최종 경영책임은 정비례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 두 그룹을 성별로 비교하면 매니저-1은 아직도 남성이 우세한 편이다. 여성들의 직장 진출이 비교적 많은 미국에서도 최고 경영지도자층은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또 이 두 그룹을 교육정도로 비교하여 보면 매니저-1이 오히려 실무층에 뒤떨어진다. 즉 교육보다는 자유 결정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력한 요인이라는 뚜렷한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교사

각급 학교 교사들이 네번째 순위로서 업무용의 목적으로 도서관이용을 많이 하는 이유는 학교도서관보다 공공도서관에 학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월등히 많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들이 16mm 필름을 많이 찾는 이유는 필름이 강의보다 월등히 재미있고 효과적이며 또한 피로한 교사들이 강의를 몇시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공도서관에 있는 대부분의 자료, 특히 아동도서자료를 학습지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 이러한 경향은 도서관이 학생들의 학습실습장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충분한 논거가 된다.

아무리 소도시에 찾아가도 학교가 있고 교사들이 있으므로 지식을 다루는 전문직중에 교사들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소도시로 갈수록 교사들의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된다. 교사그룹은 여성이 우세한 그룹중에 하나로 표 I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상반(上半) 10개 그룹중에 여성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유일한 그룹이다.

각급의 학교교육이 지방 군, 도시의 책임으로 실시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국가의 장래가 효율적인 교육에 달려있다는 의식이 좀 희박하다고 하겠다.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3분의 1에 달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때 인적자원만이 풍부한 한국의 장래는 교사들의 효율적인 수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상담역

다섯번째의 순위로 업무용의 목적으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그룹이 각종 전문 상담역(Counselor)들이다. 이 사람들은 전문지식에 의존하는 자유업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예:성문제 상담, 기업경영 인사문제 상담, 재정투자 상담 등)들을 처리할 때 비슷한 문제를 다룬 해결책이 전문분야의 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검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이런 상담역을 점쟁이들이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도 점성술(占星術)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나 점성술이란 과학적, 학술적인 근거가 없기때문에 점쟁이가 전문적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목자, 신부및 기타 교직자

여섯번째의 높은 순위로서 집단의 끝을 차지한 그룹은 교회 목사, 신부 및 교회 선교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목사는 매주일 설교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가 필요하며 교인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상담역도 겸하여야 한다. 또한 교회 경영 책임자로서 소기업의 주인과 같은 일도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모르몬 교역자들이 공공도서관의 지역자료실에 매일 출근하다 싶이 이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다.

두번째 집단에 속하는 4개 그룹은 공통적인 특징이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과학자·엔지니어·의사·법률가

이들은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과 정보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해 내는 사람들이지만 공공도서관 이용이 비교적 저조한 것은 그들이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가 공공도서관에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문분야 이외의 정부자료가 아니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의 시사(市史) 또는 역사적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이다.(예:오래된 지방신문, 주민주소록 또는 국제조사국 간행물등)

매니저 - 2

중하급 실무책임 매니저들이 두번째 집단으로 순위가 떨어진 것은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남에게 고용된 사람들로서 그들의 직책과 권한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매니저-1보다 교육정도가 높으며 연령도 적으나 제한된 직책때문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지식자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숙련기술자

열번째 순위로 상반(上半)에서 맨 끝에 위치한 그룹이 숙련된 기술자들이다. 여기에 포함된 사람은 공장의 공정반장(工程班長), 전기·전자 기술자, 섬유직조 기술자, 각종 차량 기술자, 건축 기술자, 정밀기계 기술자, 보석 귀금속 기술자 등이다.

이 사람들은 기계설계는 하지 않으나 취급하는 기계와 제조공정에 관한 높은 기초지식과 숙련된 기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전용 전문도서관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공공도서관에 의존하게 된다. 이사람들이 없이는 현대 기계문명이 유지될 수가 없다.

표1의 서열에서 하반(下半)에 속하는 세번째의 집단은 8개의 그룹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하는 일의 공통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다.

- (1) 몇개 종류의 기계나 업무처리법에 능숙할 뿐이고 넓고 깊은 지식이나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에 의존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다고 하겠다.
- (2) 일정한 일의 과정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일의 변화가 적은 편이다.
- (3)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도 없으며 타의적,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일들이다.

실업자

하반의 첫머리는 실업자로부터 시작된다. 실업자는 직종이 아니지만 그들의 행태(行態)를 별도로 연구할 목적으로 분리하였다. 이들은 다른 직종보다도 가장 젊은 사람이 많으며 각 지방, 도시신문에 보도되는 직장 구인 광고를 검색하려는 목적에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 비교적 연령이 많은 실업자들은 도서관에서 만나기가 어렵다. 많은 실업자들이 조사하려는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피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어비스-1과 서어비스-2

서어비스-1 그룹은 소방서원, 경찰관, 군인이고, 서어비스-2 그룹은 이발사, 요리사, 식당종업원, 정원사, 건물청소 유지원, 운동장·유원지·동물원 등에서 잡일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서어비스-2가 서어비스-1보다 도서관 이용도의 순위에 있어서 앞선것은 그들이 자유기업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험과 자본만 있으면 이와 같은 일을 하청(下請)을 주고 소기업화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방원이나, 경찰은 본질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기때문에 자유기업에 필요한 지식정부가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여가선용의 일환으로 소설책을 대출받기 위해서 도서관을 이용한다.

세일즈-2

이 그룹은 상점에서 일하는 하급직원들로서 이들이 업무의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도가 매우 낮다. 세일즈-1 그룹과는 대조적으로 업무에 관

이 그룹은 상점에서 일하는 하급직원들로서 이들이 업무의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도가 매우 낮다. 세일즈-1 그룹과는 대조적으로 업무에 관한 자유재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도 없다. 단지

책임자가 지시하는 대로 일하면 되기때문에 업무의 목적으로 정보자료를 필요로 하는 일이 거의없다.

하급서기 및 일반사무원

이 그룹은 소위 화이트칼라(white collar)들의 대표적인 직종으로서 미연방국세청 통계에는 행정보조원으로 집계되어 있다. 우편배달부, 군·면 서기, 비서, 은행출납원, 타자수, 컴퓨터입력타자원, 전화통신교환수 등이 포함된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많은 사무실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인들이다.

이 사람들의 사무능률의 향상이야말로 행정, 경제, 사회 전반의 원활한 운영에 직결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사무의 전산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업무결정권과 책임이 없는 보조사무원으로서 업무용의 목적으로 지식자료를 찾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도가 매우 낮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공장직공, 각종차량·건축기기 운전기사, 막노동자

이 직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한 임금을 받고 기계적인 일을 하므로 자기 일에 관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공장, 탄광, 원거리 운전등 중노동의 육체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도서관 이용은 매우 어렵다.

간호원, 의료관계 기술자

이 사람들은 고등교육과 훈련을 받은 간호원이나 각종 의료관계 기술자들로서 이들이 자기의 일에 관계되는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극히 드물다. 그들은 새롭고 변화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과 또한 그들이 필요로하는 전문분야의

문헌자료가 공공도서관에 없다는 이유에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일하는 가정부인

미국 여성의 과반수가 직장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정시제(定時制)로 일하는 가정부인도 많이 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떤 책임있는 일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므로 큰 책임이 없는 단순한 일을 하는데 지식과 정보를 찾을 필요가 극히 적다. 이러한 사항인데도 일하는 가정부인이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가정주부보다 오히려 일에 관한 목적으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재산증식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는 강한 동기의 작용으로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믿는다.

일하지 않는 가정부인과 은퇴자

전혀 일을 하지않고 가정에서 가사만을 돌보는 가정부인과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업무의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이 두 그룹이 제일 마지막 순위가 되었다.

미국의 어느도시나 지역에 가보아도 은퇴자 인구의 비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은퇴자의 비율이 높아진다. 필자가 살고 있는 시골 도시에는 은퇴한 사람이 전체인구의 15%나 된다.

이와같이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이용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사회활동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보다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활용의 가치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독서행위에는 시력작용과 정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자로서 고령자를 찾아 보기가 어렵다.

미국의 국제조사에 의하면 고령자 특히 80세 이상의 노인층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연령층이라고 한다. 따라서 비교적 젊은 은퇴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은퇴자의 평균연령이 66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의 교육정도와 이용도의 관계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거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배경이 절대 필요하다. 따라서 이용자의 교육정도와 이용도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성인에 대한 평균교육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13학년)이므로 여기에서 언급하는 교육정도는 대학교 학부 4년을 졸업한 사람들이 각 그룹안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예 : 100명중 50명이 대학 4년 졸업자라면 그 그룹의 교육정도는 50.0)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이용도가 많다는 사실과 가설에서 언급한 지식정보 의존도와 업무결정 책임이 많을수록 이용도가 많다는 사실을 비교하여 어떤 요인이 보다 더 강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용도는 대출도서 채수를 측정한 것이 아니고 활성이용자가 각 그룹안에 어느정도 되는가를 백분율 스코어로 나타낸 것이다. 활성이용자란 1년에 최소한 어떤 목적이건간에 한번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 : 한 도시에 거주하는 학교교사 100명중 50명이 활성이용자라면 교사들의 활성이용도는 50.0 그리고 활성이용도를 절대이용도라고 부르기로한다.)

두가지 독립요인(獨立要因) 즉, 교육정도와 업무용이용도가 판정요인인 활성이용도에 동시 작용한다고 볼때 판정요인에 미치는 두가지 독립요인의 비교적인 영향력을 중회귀(重回歸)통계분석법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도서관에 따라 다르다. 대도시의 중앙도서관과 분관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즉 중앙도심에 위치한 중앙도서관은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직이 비교적 많이 이용하므로 교육수준이 더

욱 강한요인으로 나타났다. 분관 또는 소도시의 도서관에서는 반대로 업무용 이용도가 더욱 강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을 모두 합쳐서 분석한 결과도 후자와 동일하다. 즉 일반적으로 업무용도서관 이용이 교육정도보다도 몇십배 높은 요인으로 활성이용도에 작용한다는 말이다.

연령과 이용도

도서관 이용도를 대출책수로 측정해 보면 연령과 이용도는 반비례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도서관 이용도를 활성이용도로 측정하면 반비례가 정비례 관계로 변화된다. 고령자가 많은 은퇴그룹을 여기에서 제외하면 정비례관계는 더욱 강해진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설명한 가설과 모순이 되지 않는다. 즉 연령과 업무결정책임이 정비례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연령이 부수적 또는 우발적으로 관련된 것이며, 연령자체가 독립요인으로 절대이용도를 좌우한다는 징조는 없다. 특히 교육정도와 비교할 때 연령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결과로 나타난다. 일하는 연령층(65세이하)에 관한한 연령은 무시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된다.

성별과 이용도

도서관 이용도를 대출책수를 근거로 한다면 여성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 절대이용도로 따지면 남성의 비중이 높아진다. 미국과 같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직종에 따라 여성 진출의 분포가 고르지 않다. 표1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상반순위의 10개 그룹중에서 여성이 우세한 그룹은 학교교사들 뿐이다. 그 밖에 9개의 그룹은 아직도 남성이 우세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반에 속해

있는 10개 그룹중 남성이 우세한 그룹은 2개직종에 불과하다(예: 서어비스-1의 소방원, 경찰, 군인과 공장 직공 등) 여성과 절대이용도가 반비례한다는 사실은 우발적인 관계로서 여성들이 책임이 있고 지적기반이 많이 요구되는 일자리에 많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과 내포된 뜻

이 연구의 분석 결과 업무용 도서관이용도와 절대 이용도 사이에 밀접하면서도 강한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결론이 색출되었다. 이 결론이 여러 곳에서 재확인되었을 때 그것이 매우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은 종래와 같이 공공도서관을 학교 학생들과 한가한 가정주부들의 독점물로 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인식으로서 조속히 배제하여야 하고, 공공도서관이 일에 필요한 직업업무용 데이터 베이스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인들은 앞으로 직업용 데이터 베이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므로써 그 지방 또는 도시의 경제 발전에 직접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메리랜드 주립대학의 메리 번디(Mary Bundy)교수가 1967년 공공도서관 이용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업무용 이용도는 17%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3년후인 1980~81년에 필자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수치는 28%에 달한다. 13년간에 약 10%가 증가한 결과가 된다. 1970년초에 하버드대학의 다니엘 벨(Bell)교수가 탈공업 지식정보사회(Post-industrial Information Society)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업무용 도서관 이용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현재는 이 수치가 33%를 초과하였을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